산벚나무의 묘목생산과 성목재배

이 상 웅 / 향촌 조경수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3리 250
TEL : (0339) 353-0747

신록이 움 돋을 때 발그스레한 산벚꽃의 색깔과 모양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한 폭의 동양화라 하겠다. 조경업계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나라의 향토수를 이용하여 많이 식재하게 된 사실은 조경가의 의식 구조 및 작품성에서의 많은 발전이 있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① 벚나무의 묘목 생산

Ⅰ. 종자

가) 종자의 채취

종자는 6월 중순을 전후하여 검은 빛으로 완숙된 것을 채취하고 탈각 정선한 다음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말려 보관한다.

나) 종자의 구입

묘목 생산의 성공 여부는 종자의 충실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서둘러 충실한 종자 구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종자 구입시 종자 업자의 권유 혹은 저렴한 가격 등에 현혹되지 말고 좋은 종자의 감별 방법을 기억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좋은 종자는 종자의 각질이 미색에 약간의 갈색을 띤 것이어야 하며 협잡물이 없고 깨끗하여야 한다. 종자를 깨 보아 배가 충실히 꽉 차 있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사항은 배의 색깔이 우유빛으로 흰색을 띠며 생생한 것이어야 한다. 배의 색깔이 너무 투명하거나 푸른 빛 혹은 누른 빛을 띠면 종자의 채취 및 정선 혹은 저장 과정이 잘못된 불량 종자임에 틀림 없다. 참고적으로 산벚 종자는 매우 작고 왕벚 종자는 입자가 큰데 산벚 종자가 여러모로 유리하다.

다) 종자의 보관 및 저장

좋은 종자를 구입하였을 경우라도 파종 후 땅 속에서 종자가 잘못되는 경우는 적으나 파종 전 종자의 보관 및 저장이 잘못되면 종자가 골게 되거나 혹은 변질되어 발아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험에 의하면 파종 시기에 따라 보관 및 저장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종자의 파종 시기가 7~10월 정도에 있다면 약간 굵고 건조한 모래 2에 종자 1의 비율로 섞어 비를 맞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였다 파종하는 방법을 택함이 좋겠다. 여러 여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 종자를 서늘하고 통풍

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파종기를 다음 해 봄으로 하는 경우는 노천 매장을 하여 두는 방법이 종자의 활력 및 발아 촉진을 돕는 방법이다. 특히 벚나무 종자의 매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o 매장된 종자가 너무 습하지 않도록 배수 관계에 각별히 유의할 것

o 저장하는 흙이 매우 깨끗한 곳으로 마세트 흙 혹은 산(山)의 굴 속(토굴)일 것

o 종자의 소독은 철저를 기할 것

o 파종하기 전 이른 봄에 너무 일찍 매장된 종자가 발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지 쪽에 실시할 것

위의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빗물 혹은 건수가 스며들어 습도가 너무 높으면 종자가 골거나 변질되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라) 종자의 파종

종자의 파종 적기는 종자를 채취한 해 장마가 갠 후 8~9월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 하겠다. 종자의 저장만 잘해 놓으면 봄 파종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봄에 파종하는 방법은 다른 수종도 그러하겠지만 가을에 파종할 곳을 선정하여 완숙, 퇴비와 비료, 살충제를 넣고 경운해 두어야 하고 특히 배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봄 파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즉 토양이 빙결 상태에서 해토되는 즉시 실시함이 좋다. 대략 경기도 중부 지방에서는 3월 중으로 파종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참고적으로 매장한 종자는 땅 속에서 발아되지 않았는가를 항시 관찰하도록 한다. 파종기가 늦어 종자가 땅 속에서 콩나물처럼 길어지면 그 해 농사는 실패한 것이 된다.

종자의 파종 방식은 파종상을 1m넓이로 만들어 하는 방법과 보리 파종하는 식으로 줄뿌림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양자 장단점이 있고 묘목을 1년생으로 솎아 출하시키고 일부를 남겨 2년 생으로 출하하는 방식을 택하려면 파종상을 정식으로 만든 후 파종함이 유리하다.

종자 파종량의 결정은 묘목의 규격 및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다른 수종에 비하여 벚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잘 자라므로 좀 드물게 파종함이 충실한 묘를 생산할 수 있어 유리하고 활력 있는 건강한 종자라면 4방 3~4cm간격으로 씨뿌림이 적당하다.

씨 뿌린 후 흙 덮는 두께는 종자 직경의 2~3배가 일반적이나 크기가 중간 정도의 종자는 대략 1~1.5cm 정도 흙덮기를 하게 된다. 1~1.5cm 정도 흙을 1cm×1cm 체로 쳐서 덮은 다음 로울러로 흙을 진압하여 종자와 흙 입자가 잘 밀착되도록 한다.

로울러 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살충제를 뿌려 준다. 살충제를 뿌린 후 짚을 덮게 되는데 짚 덮는 두께는 그 해의 기후에 따라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는 얇게, 가뭄이 심한 해에는 두텁게 덮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통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는 것이 일반적이다. 짚덮기의 효과는 토양 수분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른 방법을 통하여는 그리 쉽지 않고 위험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마) 묘목의 출하방식은 1년생으로 묘목을 전부 굴취하여 출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 2년생으로 생산하여 출하하면 1년생 묘목 가격의 2~3배 가량의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으며 또 2년생 묘 때에 전부 출하하지 말고 1m×1m 정도 남겨 두고 출하하면 남은 묘목은 매우 속히 성장하여 경영상 매우 유리하다.

② 벚나무 규격품 재배

(1) 묘목 구입은 가급적 생산자와 구입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묘목의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묘목 굴취에서 식재 운반까지의 시간을 최소한 단축할 수 있으며 묘목 굴취 후 가식 상태로 오래 두면 활착율이 매우 저하되기 때문이다.

3~4월에 묘목 식재 기간이라 하여 그 때 묘목을 구입하려 하면 식재 시기가 늦어져 활착이 좋지 않게 된다. 가급적 서둘러 묘목을 구입하여 놓고 묘목을 굴취하는 즉시 식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둔다.

(2) 식재지의 준비

식재지의 준비는 가을에 비료와 살충제를 넣고 경운해 두는 동시 배수 관계도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된다.

퇴비는 완숙된 것일수록 좋으며 비료는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묘목식재시 비료는 적어도 15일 전에 넣고 경운하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비료 성분이 땅 속에서 분해되어 수목이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비료를 넣고 갈기를 한 직후 묘목을 식재하면 묘목 활착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벚나무의 다비성 수목이므로 충분한 거름을 넣고 식재한다.

(3) 식재

묘목의 식재 시기는 토양이 해토되는 즉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겠다.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짐에 비례하여 활착율도 저하되게 된다. 식재거리는 경영 방식에 따라 다르겠으나 흉고 4~5cm에서 수목을 솎아 출하한다 하면 1cm×1cm 정도로 식재함이 알맞겠으며 흉고 7~8cm 정도로 재배하려면 1m×1.5m 가량의 넓이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묘목의 활착력을 높이는 방법은 묘목 굴취 즉시 식재함에 있으므로 묘목 수요자 및 공급자를 위하여 자기가 묘목을 굴취하여 심는 방법을 권유하고 싶다.

(4) 비배 관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벚나무는 다비성 수목이다. 묘목 식재 전후로 하여 충분한 거름을 넣어 주면 식재 2년 후 흉고 직경 4cm 정도의 규격은 무난히 생산할 수 있다. 퇴비를 넣어 주면 더욱 좋고 여의치 못하면 화학 비료를 쓸 경우 복합 비료를 넣을 것이며 비료를 무더기로 넣지 말고 토양 전면에 살포하고 묻어 주도록 한다.

(5) 제초 관리

묘목 식재지에 김매기를 할 경우 노임이 너무 많아 살초제인 그라목손 혹은 파라코액제를 잡초 발아 억제제 '라쏘' 액을 함께 섞어 살포한다. 연 3회 정도면 제초는 완전하다.

약제 살포 시 농약 업자가 식재 표목의 줄기에 맞는 것은 관계 없으나 나무의 잎에 맞으면 생장에 지장이 있고 심하면 나무도 죽게 됨을 유의하여 농약을 살포한다.

(6) 수형의 교정 및 전정

벚나무의 수형 만들기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수목 출하 시 흉고 직경의 크기에 의하여 나무의 규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재배상에 고려해야 될 점은 흉고 직경과 근경이 거의 같도록 재배함이 중요하다.

수형 교정은 벚나무 2년 생에서 실시함이 가장 용이하다. 우선 수고를 1.5m로 하여 전 부위를 잘라 버리고 또한 1.2m 이하의 가지를 전부 제거한다.

전정하는 방법은 전년도에 자란 묵은 가지는 가위로 하나하나 전부 잘라 주고 새 싹이 나올 때 장갑을 끼고 1.2m 이하의 새 싹은 전부 훑어 준

다.

그리하면 가지의 발생은 1.2m~1.5m까지의 30cm 구간에서 발생하게 되고 수목 출하시 1.2m의 부위를 재어 흉고직경을 결정하게 되므로 근경과 흉고 직경의 차이가 최소화되며 매우 좋은 수형을 만들 수 있다.

식재된 수목은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나무 높이, 수관폭, 그리고 굵기가 같은 동일 상품으로 재배되어야 출하시에 유리하다.

동일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3년째에도 세력이 좋고 큰 나무는 전정을 많이 하여 세력을 줄이고, 적은 나무는 세력이 큰 나무에 비하여 거름을 더욱 많이 넣어 주면 자연적으로 동일 상품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앞으로는 지하고가 높고 수관이 잘 발달된 나무가 좋은 수형으로 각광받게 되므로 이점에도 수목 생산자가 신경을 써서 좋은 나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 기여해야 하겠다.